

# OpenDoors

04

2023

VOL.252

##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 북한선교현장

헤우의 필사 성경 이야기 (1)

### 박해와 선교현장

모잠비크(Mozambique)

### 박해뉴스

중앙아시아 / 네팔 / 나이지리아

### 현장스토리

콜롬비아 : 발렌티나의 소원들

카메룬 : 긴급 식량 지원

### Heart To Heart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구호 캠페인 / 한국오픈도어 기도모임 /  
300 기도용사 /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발행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 전쟁의 책임!

김영우 목사  
(헤림교회 담임목사)

얼마 전, 사역하는 교회에 '북한선교대학' 강사로 오신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강의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중국과 대만' 사이 이거나 혹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셨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학자들은 먼저 '부족함의 충족'을 그 첫째 원인으로 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구팽창과 그로 인한 자원부족의 문제입니다. 1960대의 과학자들은 지구 인구의 포화점을 60억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량 및 자원과 환경문제 등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유엔은 1999년 10월, 지구 인구가 60억 명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900년에 15억 명이던 인구가 두 배인 30억 명이 되는 데는 60년이 걸렸고 그 두 배인 60억 명이 되는 데는 불과 39년이 걸린 것입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은 이런 추세로 가면 2050년에는 전 세계인구가 120억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미 전 세계 인구의 20%가 기아와 식수 부족에 놓인 상태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족의 문제'는 전쟁앞에 인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동안 '이런 류의 문제들을 인간은 전쟁으로 해결하였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경제적 문제 즉 전쟁으로 인한 무기의 대량소비와 전쟁 후 복구작업 등을 통한 경기부양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소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세계굴지의 나라로 일어난 과거를 보거나, 지금 서방이 엄청난 무기를 거의 무상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을 볼 때 그 의견이 터무니없다고 만은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지금 만일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경제에 큰 유익이 된다는 의견은 슬프지만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이데올로기 문제'나 '정치집단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전쟁을 일어난다는 의견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인 제가 전쟁의 일어날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의 상실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열왕기하 17:18-23)**

위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앗수르와의 전쟁에서 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심판하고 또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도 경고하고 또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조국 교회가 분명 어딘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반대의견을 가진 이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인구팽창이나 자원의 고갈,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조국교회와 성도들의 무력함과 죄악이 이 땅에 다시 전쟁을 가져올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텔 또 하나의 문제는 심각한 국론분열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치권의 분열뿐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의 전 방위적인 국민분열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전쟁의 입구앞에 세우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분열은 전쟁을 비롯한 멸망과 심판앞에 나라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라디아서 5:15)

우리의 조국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조국의 전쟁발발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힘써 사역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쟁의 상대방이 될지도 모를 북녘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오픈도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조국의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영적사역이 아니겠습니까?

##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혜우의 필사 성경 이야기 (1)

### 06 박해와 선교현장

- 모잠비크(Mozambique)

### 13 박해뉴스

중앙아시아 / 네팔 / 나이지리아

### 18 현장스토리

- 콜롬비아 : 발렌티나의 소원들  
- 카메룬 : 긴급 식량 지원

### 20 Heart to Heart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구호 캠페인 / 한국오픈도어 기도모임 / 300 기도용사 /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발행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2023년 04월호 | 통권 252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배수현,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송례아,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 SUPPORT

###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헤우의 필사 성경 이야기 (1)

“제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은 이 책에 다 쓰여 있어요.” 오픈도어의 동역자들은 헤우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이 용감한 여성은 두번이나 탈북을 했고, 강제 수용소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했고, 전세계를 다니며 북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지금은 70대의 중반이 된 이 여성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쓴 필사 성경을 오픈도어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이 성경을 다시 보지 못할까봐 늘 두려웠어요. 이 성경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물론 저희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필사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이니까요.” 그녀는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속엔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공책들이 여러 권 들어 있었죠.

헤우는 1940년대 현재 남한 지역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전쟁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시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중국에서 어머니가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몰래 매고 다니며 저녁 식사 전에 속삭이듯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헤우의 가족은 1990년대 일어난 기근으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딸은 기아로 죽어가면서, 부모에게 중국으로 떠나라고 말했죠. 헤우의 남편은 딸의 말대로 중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 동료에게 배신을 당해 체포되었고, 결국 북송되었습니다. 헤우의 남편

은 끔찍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이들이 남편을 보러 감옥에 갔어요. 감시관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남편은 책상 밑으로 아들의 손 위에 글을 썼어요. ‘예수님을 믿어’라고요.”

헤우는 당시 정권 선전에 의한 기독교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거짓 종교이며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헤우는 북한 정부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찾은 진실을 열 수 있는 열쇠였으니까요. 헤우는 간신히 북한을 탈출해 남편이 지낸 마을에서 지내며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우와 같은 집에서 지내던 북한인 두 명이 술에 취해 자신들의 정체를 발설하고, 주소까지 털어놓으면서 헤우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시 북한으로 데려갔고, 저는 총 10개의 감옥을 전전하며 지냈어요. 정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살려 주셨죠. 그 후 재교육 수용소에서 중노동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3년만에 풀려났습니다.” 헤우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간증하자 여섯 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스스로 비밀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풀려난 뒤에 거주해야 하는 지역을 배회하다가 다시 한번 간신히 탈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녀를 돌봐주던 어르신 중 한 분은 헤우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가치 있는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신약 전체와 구약 일부의 필사 성경이었죠.

“저는 90년대 말에 처음 탈북을 했어요.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저에게 성경책을 주었지만 이것을 설명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읽고 또 읽었고 하나님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원했어요. 1999년 1월부터는 성경을 더 잘 배우기 위해 마태복음부터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 4월에 신약성경 필사를 완성했어요. 저는 공책의 모든 공간을 채워 낭비하는 공간 없이 사용했어요. 공책을 다 쓰고 나면 모자란



용돈을 아껴 종이를 샀어요. 이 성경책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예요. 저는 혹시나 이걸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할까 두려워 항상 곁에 지니고 다녔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녀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이한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북한인들이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만나는 상황이죠. “저희는 진화론과 함께 자라왔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돌을 던지는 원숭이였다가 갑자기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어요. 저는 15살 때, 이것에 대해 선생님에게 따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화를 내시며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잘 됐고,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हे우는 특히 로마서 12장 19절(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과 많이 씨름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중국 공안에 신고 해 죽음으로 이끈 남자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हे우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시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는 스스로를 저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몇 달 뒤에 그 사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를 용서하기까지 수년이 걸렸지만, 용서하고 나니 저의 삶은 훨씬 편안해졌어요.”

헤우는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었죠. 그녀의 은신처 근처에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매일 교회를 방문했지만, 헤우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녀는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교회는 벌금을 물거나 폐쇄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바닥에 있는 짚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갑자기 천장에 불 켜진 사각형이 보였어요. 방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사각형 안에는 ‘495’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생각하다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495장 또는 495절로 된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찬송가가 떠올랐고, हे우는 불을 켜고 한국 찬송가를 펼쳐서 통합 495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를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 중 3절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사는지가 중요한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정한 건물에서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잠시는 괜찮았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 갈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헤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495장의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우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복송됐습니다.

헤우의 필사 성경 이야기 (2)는 5월호에서 계속됩니다.



#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32**위

## 모잠비크 (Mozambique)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모잠비크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이슬람 극단주의의 공격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ii)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마약 범죄 조직은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iii)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디스트에 대한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계속되는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모잠비크 (Mozambique)

## 국가 정보

지도자 : 필리프 뉴시 대통령  
인구 : 33,089,000 명  
기독교인 수 : 18,589,000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18,589,000	56.2
민족 종교	8,428,000	25.5
이슬람교	5,859,000	17.7
불가지론	123,000	0.4

모잠비크는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했습니다. 1992년에는 그 당시 유일 정당이었던 모잠비크 민주사회당(FRELIMO)과 모잠비크 민족 저항 세력(RENAMO) 사이에서 유엔이 타결시킨 평화협정으로 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적·정치적 발전으로 이어졌으나, 2012년부터 모잠비크 민주사회당(FRELIMO)과 모잠비크 민족 저항 세력(RENAMO) 사이의 긴장과 폭력 사태의 재발로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모잠비크 민주사회당(FRELIMO)이 선거 결과 논란으로 집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분쟁이 재발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극단주의 군사들은 북쪽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중 기독교인들은 지하디스트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슬람 단체 중 하나인 알루 수나 왈 자마

(ASWJ)는 모든 기독교적 상징물들을 제거하도록 요구했고, 카부델가두 주 몇몇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주택을 겨냥해 공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르완다에서 온 대규모 병력은 지하디스트들을 밀어내기 위해 모잠비크 군대와 함께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선 아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45% 정도는 15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이주민과 북부 지역 해안가의 인구는 무슬림이 지배적입니다. 북부 내륙의 몇몇 지역에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부와 중부 지역에는 기독교인 인구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 곳에는 무슬림도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상황

기독교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카부델가두 주의 북부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무장세력들이 폭력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 박해받는 성도

### 국외로 추방된 기독교인 공동체

###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전통적 기독교인들은 로마 가톨릭, 성공회, 그리고 동방 정교회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빈번하게 알루 수나 왈 자마(ASWJ)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기독교 개종한 이들

이들은 이슬람교 또는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에서 개종한 이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 중 초교파의 개종자들을 포함합니다. 이슬람 배경을 가지면서 무슬림이 지배적인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개종자들에 대한 박해는 더 심각합니다. 이들은 극단주의 무슬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는 침례교파와 오순절파를 포함합니다. 이 교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전도에 주력하기 때문에 자주 위협당하고 공격당합니다.

##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 이슬람의 탄압

2017년부터는 이슬람국가(IS)와 연관된 이슬람 단체인 알루 수나 왈 자마(ASWJ)의 무장세력들의 반복되는 공격으로 인해 수천명의 기독교인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무장세력들의 힘과 영향권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무장단체들은 마약 범죄 조직들과의 협업 및 나라의 일부 공무원들이 연루된 부패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민족 종교의 적대감

외진 지역에서 토착 신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 전도 활동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씨족 지도자들은 교회 활동에 대해 자주 항의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 독재 정치

모잠비크 정부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여전히 억압적이며 일부 교회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공공 교육 기관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국은 종교 단체에 대해 번거로운 등록 조건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모잠비크에는 조직 범죄 수준이 높으며 마약, 무기, 상아와 같은 불법 야생 동물 제품들이 항구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루 수나 왈 자마(ASWJ) 이슬람 단체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무역에 연루되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젊은 이들과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위협과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 여성

모잠비크의 기독교 여성들과 소녀들은 성희롱, 강간, 강제 결혼과 같은 폭력을 가장 흔하게 마주합니다. 모잠비크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갑작스런 유입 때문입니다. 지하디스트와 그들의 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는 납치가 흔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강제 노동에 이용당하고, 여성들은 성노동과 가사노동에 이용당합니다. 이슬람교 또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강제 결혼, 이혼, 상속 거부, 자녀 양육권 상실 등과 같은 가족들에 의한 압박에 취약합니다.

- 납치
- 자녀 양육권 거부
- 상속 또는 소유 거부
- 교육에 의한 차별과 괴롭힘
- 일/직업/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 결혼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 남성

모잠비크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이슬람 반군들에 의한 이슬람 탄압의 형태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 남성들과 소년들은 공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그들의 농지와 소유물을 잃어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소년들은 강제적으로 민병대에 충원되었습니다. 나라의 전문가들은 반군들이 공격할 때 주로 남성과 소년들을 표적으로 삼고 이들을 전사로 충원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 일/직업/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군대/민군 징집/양심에 어긋나는 복무
- 폭력 - 살인





**"정부군이 강제로 철수 당한 지역에서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도 괴롭힘과 차별의 피해자입니다."**





## 모잠비크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32	68
2022	41	65
2021	45	63
2020	66	43
2019	65	43

모잠비크의 기독교 박해점수는 2022년도에 비해 3점 높아졌습니다. 이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활동하는 북쪽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르완다의 군대와 남아프리카 국가 군대들의 군사 작전 이후로 그들은 많은 마을과 도시에 대한 통제를 잃었지만,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보고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2022년 9월: 폭력적 이슬람 종교 단체는 신앙 관련 이유로 최소 6명을 참수하고 83세 수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카부델가두 주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을 납치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납치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현지 연구원들에 의해 이들 중 일부는 기독교인들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소유물들이 파괴되고 손상되었습니다.

보고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납치당한 기독교인	강제결혼 당한 기독교인	국내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
2023	100	100	100	1000
2022	100	10	10	1000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풀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치 뒤에 표시를 붙였고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생활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북쪽 지역 기독교인들(특히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신앙을 숨겨야 하고, 발각될 경우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 가족 생활

지하디스트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북쪽, 특히 정부 군이 강제로 철수 당한 지역에서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도 괴롭힘과 차별의 피해자입니다. 심지어 천주교가 우세한 일부 지역에서까지 복음주의 기독교인 아이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 공동체 생활

기독교인 여성들과 소녀들은 북쪽의 이슬람 무장세력들에 의한 납치의 위험 아래 처해 있습니다. 마을이 습격을 당한 뒤에 납치가 자주 일어납니다. 카부델가두주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반군들이 인식하는 대로 무슬림 종교 규범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 국가 생활

북쪽에서는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상징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정부는 교회가 식민시대 이후에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 등 달갑지 않은 교회의 태도를 저해할 것입니다. 정부는 종교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의 형태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교회 생활

교회 설교는 종종 당국자들에 의해 정부 비판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북쪽에서는 지하디스트에 의해 모든 교회 활동이 감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 허가증을 고의적으로 늦게 발부하고 종교적 문제들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르완다의 법처럼 공식적으로 훈련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을 원하고 작은 교회 모임의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모잠비크는 아래의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고문방지협약 (CAT)
3.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4.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모잠비크는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북쪽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ICCPR 6조)
- 기독교인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ICCPR 7조)
- 기독교인 아이들은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ICCPR 23조, CEDAW 16조)
- 북쪽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ICCPR 18조, 26조)

##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모잠비크에서 힌두교, 불교, 유대교와 같은 소수 종교는 거의 없으며 그들은 대부분 이주민입니다. 이들에 대한 분명한 형태의 박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상당 수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나라에서 외진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박해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 모잠비크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2020년부터 모잠비크의 교회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하디스트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훈련, 박해 대비 훈련, 경제적 역량강화와 같은 긴급 지원 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해뉴스

## 중아시아\_사밀의 라마단



친구 추가하시고 매주  
전세계의 기독교 박해뉴스를 받아보세요.

사밀은 청소년기 현지교회의 청소년 리더가 세운 축구 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후, 젊은 세대들을 위해 열린 교회 행사에 참여한 뒤로 더 자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그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선교도 가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모스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은 기도 날이었어요. 저는 신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밀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몰라(이슬람교 율법학자)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밀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그는 사밀이 모스크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사밀은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몰라의 질문들에 대응할 수 없어 몹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 사밀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밀은 오픈도어에서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신앙을 위한 지식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밀은 그 다음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밀의 어머니는 몰라를 집으로 초대해 할머니를 위한 추모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후에 사밀은 다시 한번 몰라와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몰라가 사밀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는 몹시 화가 나 사밀의 부모에게 그가 세뇌를 당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사밀의 부모는 사밀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심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라마단 이전에는 이웃과 공동체 사람들의 박해를 당했다면, 라마단 이후에는 가족들의 박해를 당했다고 사밀은 전했습니다.

사밀의 아버지는 아들의 신앙에 대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자, 그는 분노했고 사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사밀의 누나와 몰라인 매형도 사밀을 탄압했습니다. 매형은 사밀이 세뇌되어 더 이상 정상인이 될 수 없으며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그의 누나도 결국 사밀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사밀은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지해주셨어요. 비록 제가 개종하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전 지금 어머니가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을 믿어요.” 사밀은





한 기독교인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니카(이슬람 결혼 의례)도, 몰라도 없는 결혼예식을 사밀의 아버지는 수치스러워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집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서 저를 때리셨어요. 아프진 않았지만, 결국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한 밤 중에 거리를 서성이면서 방황하다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둘째 누나가 몰래 집 문을 열어주어서 제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둘째 누나 아미라는 저의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신앙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예요.

“가족의 박해를 견디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저의 아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 이에요. 저의 친척들은 아무도 ‘(이슬람)신앙을 저버린 배신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멋지고 착한 믿음의 아내를 주셨어요. 저희에게는 딸 하나가 있고 둘째도 가질 계획이에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후, 여성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을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다 평등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해 상황 중에 하나님은 저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누나와 같이 여성들을 통해서 저를 도우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떠나지 않으세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큰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항상 평안을 주셨고요. 저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영혼의 평안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박해에 대한 저의 태도도 바꾸어 주셨어요. 이전에는 저의 신앙 때문에 저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기도해 주세요

- 저의 아버지, 누나들, 매형 그리고 조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저의 모든 무슬림 친척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어요.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나눠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저의 아내와 다가오는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네팔\_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세 아이의 어머니인 산티 카르키는 그녀의 놀라운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폭행과 조롱을 당하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집에서 쫓겨나고, 남편에 의해 몇 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안을 얻고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을 바로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산티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고통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의 힘들었던 경험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히려 저의 삶은 많이 힘들어졌어요. 저의 남편은 저의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며 학대하고 위협했어요. 술을 마시고 저를 때렸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제가 개종한 것을 비난했어요. 그는 저를 시험했고, 먹고 기도하고 평안히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저와 싸웠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졌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고.”

“제가 밤마다 앉아서 기도를 드릴 때면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서 제 머리를 잡고 때렸어요. 그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때렸어요. 하루는 저에게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면 당장 떠나라고 통보했어요. 그러고

는 제 성경책을 물통에 던졌고, 제가 황급히 건져냈지만 성경책은 물에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결국 남편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지내면서 물에 젖은 성경책을 말리는데 4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당장의 필요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죠. 저는 제가 당할 박해가 여기까진 줄 알았어요. 남편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전혀 몰랐죠. 그는 제가 일하던 석재 공장까지 찾아와 큰 돌로 머리를 내리쳐 죽이려고 세 번이나 공격했어요. 다행히 그때마다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네 번째 찾아왔을 때는 저와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을 제지해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이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고, 믿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저는 곧바로 교회 건물로 뛰어갔어요. 건물은 건축 중이라서 불완전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더 안전함을 느꼈고 빈 속에 모기와 씨름하면서 이틀을 숨어 지냈어요. 그 이후 저는 삼촌 집에서 지내며 굶주린 배를 달랬고, 가끔 친구 집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친구를 위협했고, 친구는 두려움에 저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 걱정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고문을 당하는 저를 보며 아이들 중 한 명은 저에게 이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서 돌아오지 말라고, 아빠는 계속 엄마를 이렇게 때리고 결국 죽일 거라고 했어요.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더 이상의 폭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옷 몇 가지를 챙겨서 집을 나왔는데 근처 시장에서 교회 자매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에게 지낼 곳과 하루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해주는 일자리를 소개해주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고 3개월 동안 지냈어요. 먹을 것은 충분했지만, 먹을 때 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돈을 버는 대로 아이들 학비로 보내주었지만, 남편이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을까 여전히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던 중 산티는 남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황달 증상에, 장기들이 완전히 손



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남편은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또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산티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죽더라도 계속 술을 마실 것이고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단히 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음식과 약을 챙겨주며 그를 돌봤어요. 그러자 남편의 건강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셨어요. 그는 한달 전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저의 신앙에 대해서 탄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도 막지 않겠다고, 또 당신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을 늘 기억해요.”

산티는 남편이 병을 앓는 동안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산

티를 지원할 수 없었지만,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그녀가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티는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과 약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벌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 기도해 주세요

-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요.
- 저의 아이들과 남편이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아이들과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나이지리아\_ 예고 없이 철거된 실향민 난민캠프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 당국이 임시 거처를 예고 없이 철거하면서, 2022년 12월 이후 최소 80명의 국내 기독교인 실향민들이 곤궁에 빠졌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아부자의 연방 수도 구 행정부(FCTA)는 수도 내의 두루미 거주 지역에 있는 국내 실향민 난민 캠프의 임시 거처들을 철거했습니다. 난민들 중 많은 수는 보코하람(이슬람 무장단체)이 기독교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힌 나이지리아의 북동 지역에서 피난 왔습니다. 이번 철거에서 피해를 입은 한 성도가 당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하마탄(12월부터 2월에 걸쳐 아프리카 내지에서 서해안으로 부는 건조한 열풍) 계절로 인해 공기는 흐렸고 날씨는 정말 추웠어요. 아부자의 두루미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는 130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들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인데, 거처가 철거 당하고 난 뒤에 이들은 혹독한 날씨 속에서 지낼 곳도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130명의 국내 실향민들 중 최소 80명은 기독교인 신자입니다.

국내 언론 Premium Times는 연방 수도 개발 당국의 사무국장 세후 아흐마드의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국내 실향민이 아니었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였을 겁니다. 이곳은 본래 이중 수송을 해야 하는 빈민가인데, 그동안 폭력배와 판잣집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범행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 있습

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이나 중요한 활동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신자에 의하면, 이곳의 성도들은 이번 조치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도적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도저가 와서 거처를 허물기 전에도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했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두루미 난민캠프는 2014년에 생겼고, 이곳은 아부자에 속한 20개 지역 중 하나이며 1000명이 넘는 국내 실향민들의 거처입니다. 이들 중에는 보코하람의 공격을 피해 그워자, 치북, 그리고 감부루갈라와 같은 북동 지역에서 피신한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아부자는 삶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국내 실향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번 철거 사태로 인해 거처를 잃은 난민들은 충분한 식량도 없이 심각한 위생상태 가운데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폭력으로 300만명 이상의 실향민이 생겼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 철거 이후 거처 없이 힘든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신자들에게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콜롬비아 발렌티나의 소원들



사랑하는 사람을 5년 동안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 발렌티나가 겪은 일입니다.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고 지형이 덜 험하며 치안이 안전한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5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서 산다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오픈도어 어린이 센터의 기독교인 아이들은 학기가 끝나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까지 큰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다행히 발렌티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웃음과 맛있는 식사, 여행의 기쁨으로 가득했으며 발렌티나는 간절히 원했던 대로 5년 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발렌티나가 대부분의 유년 시절을 보낸 이 곳은 그녀의 가족이 박해 받았던 기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학을 보내며 친구, 가족들과 즐겁게 노는 기억들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향수와 함께 어우러져 과거 그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화해하고 한 가족으로 살고자 하는 강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발렌티나는 변화 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올해 많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어린이 센터의 교육기관에서 학사 학위로 졸업하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학 장학금을 얻고자 합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성장해 가족,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발렌티나는 가족들과 함께한 귀한 시간들을 통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주위의 형제자매들과 그녀처럼 박해 받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발렌티나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더 많은 소원들이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오늘 간증한 그녀의 이야기를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 카메룬\_ 긴급 식량 지원 (영상)

긴급 식량 지원은 오픈도어 아프리카 사역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 실향민, 난민, 빈곤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무이지만, 여러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종종 기본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현지 교회를 통해 긴급 구호가 필요한 기독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최대한 현장 상황에 개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영상 자료를 통해 오픈도어의 긴급 식량 지원 사역 중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은 최근에 카메룬의 최북단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식량을 배급하는 현장 모습과 도움을 받은 두 사람의 짧은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긴급 구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한 폭력으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긴급 식량 지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 자료 보기 →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유튜브 채널 (QR코드를 찍어주세요)에서 “카메룬 긴급 식량 지원”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들어가기



사역 후원하기





지난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이 강타한 후 오픈도어의 파트너들인 현지의 교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안식처, 따뜻한 음식, 그리고 피해 복구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강진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난 당한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

다.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메세지를 전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오픈도어 기도모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매주 화요일 저녁 7:30-8:30 오픈도어 온라인 기도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전 세계 박해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여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모바일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매주 기도모임 온라인 참여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모바일번호: 010-7548-3171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QR코드 스캔)



## 박해 지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300 기도용사를 모집합니다.



기도용사는 주간 기도제목을 통해 한 국가를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용사는 매월 발행하는 기도월력의 기도제목을 통해 여러 국가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용사는 지역에서 모이는 기도집회에 참석하여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로 신청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300 기도용사  
신청 QR코드



# Open Doors Weekly

오픈도어위클리 발행

2023년 4월 5일

모바일 주간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를 발행합니다.

매주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개국에 대한  
정보, 박해뉴스, 현장스토리, 그리고 영상자료를 담은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친구 추가하시고  
오픈도어 주간지를 받아보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